

【특집 · 설총 선생과 국어】

설총과 차자 표기법

남풍현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 序 言

2001년 10월의 문화인물로 설총이 정해진 것은 그가 한국 고대의 문자생활에 남긴 업적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태종무열왕 때인 650년대 후반에 태어나 문무왕, 신문왕, 효소왕 대를 거쳐 700년대 전반기인 성덕왕 대까지 활동한 신라의 큰 유학자였다. 이 시대에 그가 남긴 업적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유학과 문자생활에서 중심적 구실을 하였고 조선시대에도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가 활동한 시대가 1300년 전의 먼 옛 일인데다가 남아 있는 기록이 단편적이어서 그가 남긴 업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해오는 기록을 단순한 번역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뜻하는 의미를 찾아보는 일은 그의 업적을 오늘에 재생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총에 관한 기록을 근래에 발굴된 차자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가 남긴 업적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 것인가를 음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薛聰의 經典 解釋과 그 普及

설총이 남긴 업적은 正史인 三國史記와 史書에 준하는 三國遺事의 기록에 실려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그의 업적을 고구해 보기로 하자.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薛聰의 字는 聰智이고…… 아버지는 元曉이다.…… 그는 본성이 총명하고 예민하여 나면서부터 배우지 않고도 도리와 학술을 알아 우리말로 九經을 읽어 후생들을 가르쳐 지금도 학자들이 그를 宗主로 삼는다.¹⁾

삼국유사에는 이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설총은 나면서부터 예민하여 經典과 史書에 널리 통하니 新羅十賢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말[方言]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方言과 俗語의 物名을 서로 통하여 알게 하였고 六經과 文學을 해석[訓解]하여 지금도 明經을 專業으로 하는 이가 傳受하여 끊이지 않는다.²⁾

이는 설총이 聖賢과 같은 총명을 타고났고 유학의 경전과 역사서에 널리 통하여 신라의 십현(十賢)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음을 말하여 준다. 그가 우리말로 경전을 읽었다는 것은 경전을 우리말로 해석하여 읽는 석독구결(釋讀口訣)을 지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기나 유사가 지어지던 고려시대까지 전하여졌다는 것은 500여 년 동안 유학의 경전을 해석하는 표준적인 구결이 되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校正廳의 經書諺解가

1) 薛聰字聰智, ……父元曉. ……聰性明銳 生知道術.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2) 聰生而叡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 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絕.

표준적인 경전 해석서가 되었던 것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諺解는 고려시대에 성리학이 수용된 후 30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설총의 석독구결도 삼국시대부터 수용하여 온 중국 유학의 성과를 수용하여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설총의 석독구결이 지어진 후 중국 유학의 이론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전한(前漢)의 금문학(今文學), 후한(後漢)의 고문학(古文學)과 훈고학(訓詁學), 남북조시대의 북학과 남학을 거치면서 經學이 발전해 오다가 당의 태종 때에 이르러 안사고(顏師古)에게 經文의 통일음, 공영달(孔穎達)에게 경전의 뜻을 통일할 것을 명하여 顏氏定本과 五經正義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표준적인 경전으로 통일되어 송대의 성리학이 나오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설총의 석독구결은 이 안씨정본과 오경정의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바르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많은 학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설총의 經學은 훈고학에도 철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遺事의 ‘우리말[方音]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방언과 속어의 物名을 서로 통하여 알게 하였다(以方音 通會華夷方俗物名)’라는 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方俗物名の ‘方俗’이란 말은 훈고학에서 쓰는 말로 경전의 용어인 雅言에 대립하는 말이다. 이는 경서의 한자를 우리말로 주석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총이 훈고학에 정통하여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도 설총이 훈고학으로 경전을 해석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선조 37년 9월에 예조에서 왕에게 올린 계목(啓目)에 김굉필(金宏弼) 등 조선시대의 다섯 유학자를 문묘에 배향(配享)할 것을 청하면서 ‘최치원과 설총은 사장(詞章)과 훈고의 학문을 가지고도 묘정에 배향하였으니’ 이보다 더 격이 높은 성리학을 연구하여 업적을 남긴 김굉필 등은 문묘에 배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김굉필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총의 업적을 비하(卑下)한 감도 있지만 설총의 유학이 훈고학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설총의 훈고학적인 업적이 전하지 않아 구체적

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옥편(玉篇)과 같은 저술로 이루어져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설총의 석독구결이 어떻게 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게 되었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설총의 구결은 오늘날의 대학에 해당하는 國學에서 교수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국학은 진덕여왕 5년(651)에 대사(大舍) 2인을 둬으로써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신문왕 2년(682)에 교장에 해당하는 경(卿)을 두고 체제를 갖추어 禮部에 속하게 함으로써 활발한 기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³⁾ 이 때는 설총의 나이 25세 전후인데 설총이 총명하여 이미 유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지만 그의 선배인 強首가 국학의 체제 정비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무렵 설총은 신문왕에게 花王戒로 알려진 諷王書를 지어 올려 높은 자리에 발탁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국학의 중요한 직책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한다. 그가 석독구결을 지어 여기서 教授함으로써 그 제자들이 관리로 발탁되어 전국에 부임하게 됨으로써 그의 석독구결이 널리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3. 薛聰의 釋讀口訣과 借字表記法の 發達

석독구결은 한문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말음침기에 해당하는 토(吐)를 붙여 그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하여 읽는 한국의 독특한 한문 독법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諺解와 유사하지만 한문의 원문을 그대로 두고 토를 붙여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석독구결 자료는 고려시대까지는 佛家の 口訣이 전할 뿐 아쉽게도 儒家의 口訣은 전하는 것이 없다. 불가의 석독구결은 口訣字로 토를 단 묵서구결(墨書口訣)과 점과 선으로 토를 표시한 점토구결(點吐口訣)이 있다. 이 양자는 같은 불가의 구결이지만 독법을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서

3) 李丙燾(1959). 「韓國史- 古代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6, 4판). 667면 참조.

계통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에는 이밖에도 계통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구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설총의 구결도 특징이 있는 독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전하는 실물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전하는 석독구결로 볼 때 이들은 차자표기법의 발달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불가의 석독구결을 가지고 설총의 구결이 우리말의 표기에 미친 결과에 대하여 추정해 보기로 하자.

復有他方不可量衆

復_ㄱ有_ㄷ他_ㄴ方_ㄷ不_ㄱ可_ㄷ量_ㄴ衆_ㄷ

먼저 널리 알려진 구역인왕경(舊譯仁王經)의 석독구결을 가지고 그 독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표>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큰 글자로 써진 것이 이 불경의 원문이고 行의 좌우에 작은 글자를 붓으로 써넣은 것이 토이다. 이 토는 구결자로 쓰이는데 획이 단순한 것은 正字가 그대로 쓰이지만 획이 많은 글자는 略體字가 쓰인다. 약체자는 借字(漢字)의 楷書體나 草書體에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따온 것이다.

<도표>

이 구결을 읽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行의 오른쪽에 토가 붙은 한자(한문 구성소)인 復_ㄱ, 他_ㄴ方_ㄷ, 量_ㄴ을 차례로 읽어 내려가다가 점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 왼쪽에 토가 붙은 한자를 읽는다. 여기서는 ‘量_ㄴ’의 끝에 점이 있으므로 이를 읽고 바로 위로 올라가 왼쪽에 토가 붙은 ‘可_ㄷ’을 읽는다. 이 토의 끝에 점이 또 있으므로 다시 바로 위로 올라가 行의 왼쪽에 토가 붙은 한자인 ‘不_ㄱ’을 읽는다. 이 한자에는 점이 없으므로 아래로 내려와 오른쪽에 토(점)가 붙은 한자인 ‘衆_ㄷ’을 읽는다. 이 한자에 점이 있으므로 위로 올라가 왼쪽에 토가 붙은 ‘有_ㄷ’를 읽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 읽을 때는 行의 왼쪽에 토가 붙은 한자를 읽고 점이 없어서 내려와 읽을 때는 行의 오른쪽에 토가 붙은 한자를 읽는 것이 이 석독구결을 읽는 원리이다.

1)의 예문을 토가 지시하는 순서에 따라 다시 배열하고 우리말로 읽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ㄱ) 復フ 他方ト 量リ 可シ 不知 衆有
 ㄴ) 復爲隱 他方叱 量乎音 可叱爲隱 不知是飛叱 衆有叱在旆
 ㄷ) 復フ 他方ト 量リ 可シ 不知 衆有
 ㄹ) 復フ 他方ト 量리 可시 不디 衆有
 (또한 他方の 量함직하지 않은 衆이 있으며)

1ㄱ)이 원문을 토가 지시한 대로 우리말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ㄴ)은 ㄱ)의 구결자를 정자로 바꿔 놓은 것이다. 구결의 약체자는 한자의 한 부분을 따서 일종의 메모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면 언제나 정자로 바꿀 수 있다. 그리하여 구결을 인쇄하거나 공식적으로 공개할 때는 약체자를 정자로 고쳐 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에서 ㄴ)으로 바꾸는 일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ㄷ)은 ㄴ)의 구결자를 한글로 옮긴 것이고 ㄹ)은 원문의 음독자와 훈독자를 구별하여 훈독자를 우리말로 새겨 읽은 것이다.

현재 이 계통의 석독구결은 大覺國師 義天이 11세기 말에 간행한 華嚴經疏 권35를 비롯하여 5종의 자료가 발굴되었다. 이들은 12세기 초에서부터 13세기 중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석독구결을 우리말로 풀어 놓은 ㄱ)과 ㄴ)의 구조를 어절을 단위로 살펴보면 의미부를 나타내는 앞부분은 讀字(表意字)로 표기되고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뒷부분은 구결자로 된 토로 표기된다. 구결자는 원칙적으로 표음문자인 假字이므로 ㄴ)은 '讀字 + 假字'의 표기 구조를 이룬다. 이것이 향찰이나 이두에 적용되어 차자표기법의 원리가 된다.

위의 표기를 향찰의 표기법과 비교해 보자.

이 이두문은 구결이나 향찰에 비하여 조사나 어미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중심 형태만 표기하여 나머지는 짐작하여 읽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표기 구조가 ‘讀字 + 假字’로 되어 있음은 구결이나 향찰과 같다.

이러한 사실들은 假字로 표기되는 ㅌ가 우리말을 원만하게 표기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 준다. 설총이 경전의 석독구결을 지었다는 것은 경전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말음침기를 나타내는 ㅌ를 기입하여 그 한문을 우리말로 읽는 법을 표시하였음을 말한다. 이 토의 발달이 차자표기법으로 하여금 우리말을 원만하게 표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인들은 경전의 석독구결만 익히면 향찰이나 이두를 힘들여 학습하지 않아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4. ㅌ와 借字表記法の 發達

토의 발달은 차자표기법이 국어를 원만하게 표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인데 설총의 석독구결이 이 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 토는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여 주는 자료는 전해 오는 것이 빈약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우리는 이두를 통하여 그 발달시기를 어느 정도는 살필 수가 있다. 현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실물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이두밖에는 없고 향찰과 구결은 불행히 고려 초기 이후의 자료만이 남아 있다.⁴⁾ 이두에 나타나는 시대적인 변천상을 보면 삼국시대의 이두는 그 어순이 국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거나 한문과 국어의 어순이 섞여 쓰이고 후대의 이두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한자들이 쓰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토의 모습은 보여 주지 않는다. 현재 토가 쓰인 가장 이른 시기의 이두문은 감산사아미타여래

4) 삼국유사의 향가는 신라의 노래이지만 13세기에 와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신라시대의 국어나 표기법을 반영하는 자료라는 보증이 없다.

조상기(甘山寺阿彌陀如來 造像記)인데 여기에 쓰인 ‘助在哉/돕겨지’의 ‘-在哉/겨지’가 토이다. 이 조상기는 720년에 쓰인 것으로 설총이 찬(撰)하였다고 하는 한문 조상기의 말미에 기록된 것이어서 이는 설총의 시대에 토가 쓰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大覺國師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義湘大師의 華嚴經 講義를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要義問答 2권과 一乘問答 2권에 우리말이 섞여 있다고 하였다. 화엄경 강의를 우리말로 기록하자면 토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니 여기에 토가 쓰였을 것은 추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일본에서도 센묘(宣命)에 토가 쓰였음이 확인되는데 그 가장 이른 것은 697년까지 올라가고 같은 종류의 토가 쓰인 노리도[祝詞]도 7세기 후반까지 소급된다고 한다. 이는 백제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므로 삼국시대 말기에는 백제에도 토가 발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들은 설총보다 한 세대 앞서는 시대에 이미 토가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설총 이전에는 토가 발달되어 있었어도 그 보급은 승려들이나 일부 지식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을 것이다. 설총의 經典 釋讀口訣은 國學에서 교수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므로 이 기관 학생들이 관리로써 또는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진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갔을 것이다. 이들이 설총의 구결을 표준으로 삼아 가르치고 그것이 이두와 향찰 표기의 모태가 되었으므로 설총이 차자표기의 창시자로 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설총 이전부터 토가 사용된 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설총의 구결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었으므로 시대가 흐를수록 그것은 설총의 구결에서 왔다는 설에 흡수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 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均如傳의 崔行歸 序文이다. 이는 均如의 普賢十願歌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붙인 서문으로 960년에 지은 것이다. 설총이 활동한 시대에서 보면 300년 미만의 시간차를 가진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시를 이해하지만 균여대사의 훌륭한 향가인 보현십원가는 중국에 전해지지 못한다. 보현십원가가 중국에 전해지

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이 향찰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한자를 쓰면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까닭을 최행귀는 중국의 한문은 공자가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통하지만 향찰은 설총이 儒學의 글인 한문을 바꾸어서 쥐꼬리를 만드는 데 그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된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보현십원가와 같은 향찰을 설총이 경전을 우리말로 해석한 석독구결에서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균여의 보현십원가와 같은 향찰이 설총의 석독구결에서 나왔다고 본 것은 설총의 구결이 전국에 보급되어 우리말 표기법의 원천이 되어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설총의 업적을 ‘쥐꼬리[鼠尾]’라고 평한 것도 암시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설총의 업적이 공자의 업적에 비하면 보잘것없음을 말한 것이지만 ‘쥐꼬리’라고 한 것은 또 다른 상징을 가진 重意表現이다. 즉 경전을 원형대로 두고 그 행간에 작은 글씨로 토를 단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쥐꼬리’라고 한 것이다. 이는 설총의 석독구결이 전국에 널리 보급되어 고려 초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모든 차자 표기법이 설총의 경전 해석인 석독구결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295년경에 李承休가 지은 帝王韻紀의 詩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弘儒侯 薛聰이 吏書를 지어 우리말(俗言과 鄉語)이 과두문자(蝌蚪文字)와 예서(隸書)에 통하게 되었다.(弘儒薛侯製吏書 俗言鄉語通科隸)

과두문자는 공자 시대에 쓰이던 것으로 後漢 시대에 儒學의 古文學과 訓詁學을 일으킨 문자이다. 隸書는 前漢 때에 사용된 문자로 이를 가지고 경전을 연구하는 유학을 今文學이라고 한다. 즉 이들은 前後漢 시대에 금문학과 고문학을 있게 한 문자들이니 이 시구는 ‘薛聰의 吏書가 있음으로써 우리말이 儒學에 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⁵⁾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한 ‘吏書’라는 말은 蝌蚪文字와 隸書에 대응하는 문자의 개념으로 쓴 것이고 이승휴는 이를 통하여

‘薛聰의 吏書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공자의 가르침을 받드는 유학의 나라, 곧 문화적인 국가가 되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 吏書는 곧 최행귀의 鄉札과 같은 뜻이니 설총이 석독구결로 경전을 우리말로 읽은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다. 설총이 지은 것은 구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그가 이두를 지었다고 한 것은 문자의 개념으로 쓰던 吏書라는 개념이 바뀌어 ‘公私文書와 같은 실용문 속의 우리말 語助辭를 가리키게 됨으로써 석독구결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설총은 경전을 우리말로 읽은 석독구결을 지은 것인데 여기에 쓰인 토가 향찰과 이두를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었고 국학을 통하여 이 구결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으로써 향찰과 이두도 설총이 처음 지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略體字와 省劃字

설총의 구결에서 사용한 자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점도 당시인들의 문자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구체적인 실물이 전하지 않고 훨씬 후대인 고려시대의 자료만이 전하는 지금 이 문제 역시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고려시대의 구결에서 사용된 자형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설총의 구결에서 사용한 자형에 대하여 추정해 보기로 한다.

고려시대의 구결에서 사용하는 차자(借字)의 자형은 원칙적으로 略體字이다. 획이 단순한 차자는 정자대로 사용하지만 획이 복잡한 차자는 그 일부분

5) 科隸를 과두문자와 예서로 본 것은 황쾌강(1975)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는 이를 과두문자와 예서로 해석하고 과두문자는 ‘경서류’, 예서는 ‘관청의 공사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를 고문과 금문으로 보면 둘 다 유학의 경전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내용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黃淇江(1975). 『新羅鄉歌研究』. 『國文學論集』 7·8. (檀國大國文科, 126면 참조).

을 따서 사용한다. 정자에서 부분을 따올 때는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따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운데 부분을 따는 예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大/대’는 획이 단순하여 정자대로 사용한 것이고 ‘𡇗/라’는 획이 복잡한 ‘羅’에서 앞부분을 따서 사용한 것이다. 羅의 약체자는 후대에는 ‘𡇗/라’로 교체되는데 이는 ‘羅’의 속자 ‘𡇗’의 뒷부분을 따온 것이다.

구결에서는 해서체와 아울러 초서체도 사용한다. 일반적인 문자생활에서 개인적인 기록을 할 때는 해서체보다도 초서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서체에서 온 약체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 /기’는 ‘中’자의 초서체가, ‘𡇗 /드’는 ‘等’자의 초서체가 직선화된 것이고, ‘ㄷ /야’는 ‘良’자의 초서체에서 앞부분을 따온 것이다. 같은 글자의 같은 부위에서 따온 자형이라도 시대에 따라 단순화되거나 변화되기도 한다. ‘羅’는 ‘𡇗 → 𡇗 → 𡇗’의 과정을 거쳐 여말·선초에는 ‘·’로 바뀐다. ‘彌/미’의 앞부분을 따온 ‘ㄷ’는 여말·선초에 오면 ‘ㄷ’로 바뀌어 조선시대 말까지 사용된다. 正楷體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몇 예만 들면 ‘加/가’, ‘𡇗/게’, ‘𡇗/고’, ‘𡇗/곤’ 등과 같은 자형이다. 이들은 사람에 따라 그 약체자 ‘力, 𡇗, 𡇗’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약체자가 주로 쓰이고 정해체는 간혹 섞이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약체자는 개인의 메모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나 정자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토를 본문 속에 인쇄하여 넣거나 대중들에게 공표할 때는 정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고려시대의 구결에서 기입토를 보여 주는 것은 약체자를 주로 사용한 것이다. 그 가장 이른 것은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晉本華嚴經 권20에 쓰인 것이다. 이 자료는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全卷에 角筆點吐를 기입한 것이다. 다만 그 欄上에 別本에서 옮겨 적은 墨書인 ‘別本云 衆生 → 身 七 中 ㄷ +’라고 한 것이 있다. ‘→, 七, ㄷ, +’가 토를 표기한 약체자이다. 이를 기입한 사람은 다른 난상의 註에서는 토를 각필점토로 표시한 것이 있어 이 약체자는 점토의 기입자가 옮겨 적은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기입 연대는 이 판본이 간행된 후 오래지 않은 시기로 늦어

도 10세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현재 가장 이른 약체자는 10세기까지는 소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자형은 11세기의 瑜伽師地論 角筆點吐에 나타나는 것과 같고 12세기 이후의 墨書口訣에 나타나는 것과도 같다. 이는 10세기에는 구결에서 약체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구결 가운데 연대가 확실하면서도 가장 이른 것은 均如의 釋華嚴教分記에 나오는 것이다. 이는 960년대에 균여가 강의한 것을 그의 門人들이 옮겨 적은 것으로 본래 方言本이었던 것을 한문으로 改修하고 2行 남짓한 구결만이 전하게 된 것이다. 이 구결은 판각되어 인쇄된 것이므로 토를 정자로 바꾸었고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각주의 형식으로 두 줄로 나누어 적은 것이다. 이는 10세기에도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기입할 때는 약체자를 주로 쓰고 공적으로 간행할 때는 정자로 바꾸어 쓰임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약체자는 언제나 정자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것이지만 한 경전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문자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약체자만으로도 하나의 기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독립된 문자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약체자가 구결이 발생할 초기부터 발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총의 시대에 과연 약체자가 있었는가는 이제부터 고증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신라시대의 구결 자료는 전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시대의 자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금석문과 고문서로 남아 있는 이두 자료와 일부 고려시대의 문적들이다. 신라시대의 자료에 나타난 차자 가운데서 정자의 원리를 벗어나는 자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 글자를 合字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자의 획을 생략하는 省劃字이다.

합자는 삼국시대 금석문인 남산 신성비(591)에 보이는데 그 제1비에는 관등명인 ‘小舍, 大烏, 上干, 一伐’ 등이, 제2비에는 ‘上干, 一伐, 一尺, 彼日’ 등이, 제3비에는 ‘大舍, 小舍’ 등이 한 글자로 합자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고문서인 신라 화엄경 사경 조성기(755)에는 ‘大舍’를 합자하되 ‘舍’의 첫 두

획을 감획한 자형을 보여 준다. 이 조성기에서는 두 글자로 된 관등명을 한 글자로 줄여 표기한 예도 있다. ‘奈麻’를 ‘奈’로 ‘畚知’를 ‘畚’로 표기하는 것이 그것인데 ‘畚’와 같은 것은 고려초기의 명봉사 자적선사비의 첩문(941)에서도 볼 수 있다. 영천 청제비 정원명(798)에서는 ‘乃末’을 합자한 자형과 아울러 ‘功’과 ‘夫’를 합자한 ‘𠄎’의 예가 나온다. 후자는 고려시대에는 ‘𠄎’으로 굳어져 한국의 고유한 한자가 되었다. 이러한 고유 한자에 현대까지도 널리 쓰이는 ‘畝’자가 있다. 이는 ‘水’와 ‘田’이 합해진 것으로 신라장적(750년대 추정)에 이미 나타난다. ‘太’가 ‘콩’의 뜻을 갖는 것은 ‘大豆’의 ‘豆’자를 초서체로 흘려 쓰다가 단순화시켜 점으로 줄인 것인데 이 역시 고유 한자의 범위에 든다. ‘大豆’가 ‘太’로 줄어드는 과정을 우리는 정창원 소장 신라출납장(750년대 추정)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형은 문서 작성에서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신라시대의 생획자는 울진봉평신라비(520년대 추정)에는 ‘條’자에서 앞쪽의 3획을 감획한 자형이 쓰였고 ‘等’자의 초서체에서 단순화된 ‘𠄎’자도 쓰였다. 이 ‘𠄎’자는 무술오작비(578 추정), 통일신라시대에는 영태2년명 석비로 자나불 조상명(766), 영천청제비 정원명(798), 규흥사종명(856)에도 나타난다. 이 가운데는 토의 표기에 사용된 것도 확인된다. ‘鋌’자는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종명에 자주 쓰인다. 상원사종명(725)에서는 정자대로 쓰였으나 선림원종명(804), 연지사종명(833), 규흥사종명(856)에서는 생획자 ‘廷’이 쓰였다. ‘檀越’은 상원사종명에서 이미 ‘旦越’로 쓰인 예가 있다. 旦은 檀의 생획자인데 선림원종명에도 쓰였다. ‘維那’는 흔히 ‘唯乃’로 쓰인다. 維가 唯로 쓰이는 것은 초서로 흘림에 따라 糸가 口로 바뀐 것이다. ‘唯那’의 예는 무술오작비에 이미 나타난다. 那가 乃로 바뀐 것은 감획에 의한 것이다. 무진사종명에는 ‘雀乃’로 쓰인 예가 있고 상원사종명과 선림원종명에는 ‘唯乃’로 쓰이고 있다. ‘那’는 신라 화엄경 사경 조성기와 영태2년명 석비로자나불 조상명에선 토 ‘이나’의 표기에 쓰였는데 이것이 정창원 소장 색모전의 첩포기(8세기 중엽 추정)에서는 ‘乃’로 쓰였고 8세기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예가 증가한다.

생획자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菩提’을 감획하여 그 앞부분 ‘卍’만을 두 번 겹쳐 사용한 것이다. 이는 균여전에 쓰인 것이 가장 이른 것인데 신라시대 까지 소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생획자들을 볼 때 삼국시대부터 이미 생획자가 사용되어 신라시대에는 적지 않은 용례를 보여 준다. 특히 구결의 약체자로 쓰이는 ‘卍/ㄷ’와 ‘乃/나’가 이두의 토에 사용된 것은 구결에도 약체자가 발달되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설총의 구결에서 토의 표기에는 생획자가 쓰였을 가능성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토의 발달이 오래지 않은 시대에 이들이 약체자로까지 발달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생획자보다는 정자가 더 많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총의 구결에는 생획자가 쓰였을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약체자로까지 발달하여 체계적으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체자가 널리 쓰인 것은 설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 아마도 9세기에 들어서나 발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6. 結 語

설총은 중국의 經學과 訓詁學에 정통하여 당나라 시대에 통일이 된 顏氏定本과 五經正義를 底本으로 경전의 釋讀口訣을 지었고 이것이 國學에서 교수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석독구결은 한문에 토를 달아 그 한문을 우리말로 새겨 읽는 구결로 여기에 쓰인 토가 모든 차자 표기법에 적용되어 그 표기법의 원천이 된다. 설총의 석독구결은 국학에서 교수됨으로써 전국으로 보급되어 설총 이전에 토가 발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자표기법이 설총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설총의 석독구결은 현재 실물이 전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은 시대와 학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설총의 구결에 가까운 것을 가려내기는 어

럽다. 그러나 그 표기구조가 ‘讀字 + 假字’의 구조였고 이것이 차자 표기법을 발달시키는 원천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설총의 시대에 구결의 약체자가 발달되어 있었을까 하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 현재 전하는 금석문이나 고문서의 자료로 보아 부분적으로는 약체자가 쓰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正字가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